금호타이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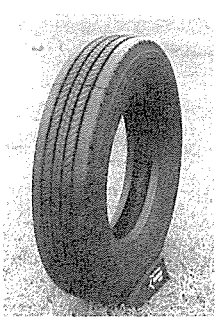
금호 초경량 트럭 · 버스용 레디얼 타이어, 2003 대한민국기술대상 수상

금호타이어에서 개발한 "초경량 트럭 · 버스용 레디얼 타이어"가 2003년 대한민국기술대전에서 국무총리상(금상) 수상제품으로 선정되었다.

해외 선진 타이어업체들이 타이어 경량화 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하여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Goodyear, Michelin, Bridgestone사 등 해외타이어메이커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하여 금호타이어 독자 기술개발을 통하여 초경량 고강도 타이어를 개발함으로써 매출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본 기술은 산업자원부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지원 하에 3년 동안 추진하여 국내 최초로 트럭 · 버스 타이어에서 기존 대비 약 20% 더 가벼운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또한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고강도의 스틸코드 국산화 개발 성공함으로써 다른 규격 타이어에 경량화 기술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품의 경량화를 통하여 재료비의 절감 및 차량의 연비개선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품에 비하여 내구력, 파괴압 등 제품의 제반성능도 해외선진타이어업체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금호, Premium 시장 겨냥 '엑스타 DX' 60/65 시리즈 출시

국내 최대 타이어업체인 금호타이어는 최근 18개월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Premium 시장을 겨냥해 만든 '엑스타DX' HP제품인 60/65시리즈 신상품을 8월 말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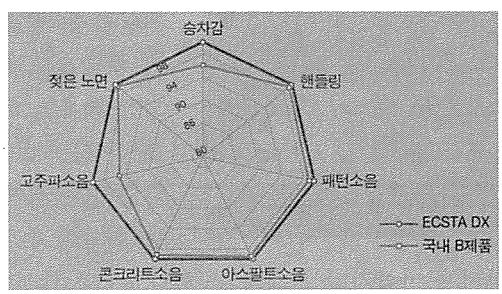
"엑스타DX"는 직진 고속 주행 및 코너링시 요구되는 성능인 고속 안정성 및 핸들링 성능은 물론 중대형 세단의 안락한 드라이빙을 위해 국내 최고의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 및 초저소음 성능을 맛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엑스타DX" 는 신차 출고용 타이어 규격 그대로 인치업(Inch-Up)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드라이빙을 보장한다. 이 번 60/65시리즈 제품출시로 인하여 안전, 편안, 저소음 드라이빙을 즐기는 운전자들의 욕구를 더욱 만족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1개당 약 14만원에서 20만원이다.

엑스타DX 60/65시리즈 제품은 저소음 사계절용 특수고무와 소음/진동 발생을 차단하는 고무층을 배치하여 소음성능을 확보하였고, 구동력/ 제동력 및 겨울주행 성능이 우수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엑스타DX 는 국내 최고의 보장을 자랑하는 2년간 무상보증교환제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호관계자는 "UHP타이어 시장에서 인정된 엑스타의 브랜드 파워, 품질력, 디자인 등을 일반 Premium시장의 소비자들도 이를 향유할 수 있게끔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고,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Premium시장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림 1〉 '엑스타DX ' 60/65시리즈 성능 비교표

〈표 1〉 ECSTA DX 60/65 시리즈 출시 규격표

브랜드	시리즈	규 격	적 용 차 종
ECSTA DX	60	235/60R16 100V	BMW-7, BENZ-S(구), SEVILLE 등
		225/60R16 98V	에쿠스, 오피러스, A8, BENZ-S 등
		215/60R16 95V	체어맨, 엔터프라이즈, 트라제XG 등
		205/60R16 92V	뉴그랜져XG3.0, 뉴EF쏘나타2.5 등
		225/60R15 96V	에쿠스(구), 다이너스티, 트라제XG 등
		215/60R15 94V	뉴그랜져XG, 뉴EF쏘나타, 뉴포텐샤 등
		205/60R15 91V	EF쏘나타, 리갈, 옵티마, 카렌스2 등
	65	205/65R15 94V	뉴그랜져XG, 뉴EF쏘나타, 뉴포텐샤 SM5
		205/65R14 91V	EF쏘나타, 옵티마1.8, 크레도스, 레간자, 카스타

넥센타이어(주)

부산지점 및 부산전시장 OPEN

지난 9월 5일 부산지점 및 부산전시장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에서 넥센의 이규상 부회장 및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OPEN하였다.

부산지점은 넥센 지점의 모델이 되는 건물로 그 특이한 이미지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중이며 향후 신축되는 모든 지점, 출장소 건물들은 부산지점과 유사한 형태로 건축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 최대규모인 부산전시장은 넥센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형 컨셉타이어를 비롯해 초고속주행용 타이어인 UHP타이어, SUV차량용타이어 및 스노우타이어등 넥센의 주력판매 타이어 제품류 뿐만 아니라 최첨단 LCD멀티비젼 및 높이 8m초대형 모델사진, 실물크기의 스포츠카가 전시되는 등 공사 시작부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고급 까페 풍의 상담공간도 마련되어 상담을 할 수도 있다.

부산전시장은 생산판매제품만 아니라 넥센 관계사들의 생산판매제품을 전시하고 있어 넥센그룹의 홍보관으로서도 제몫을 할 수 있게 되었다.

Bias는 가슴속으로 Radial은 희망속으로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경 이규상 부회장과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BIAS 공장 가류 H-6호기 앞에서 60년의 역사를 가진 BIAS 조업 중단과 더불어 UHP RADIAL 타이어 신규 증설 투자를 위한 행사가 치러졌다. 금번 BIAS 사업부문의 구조조정과 아울러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온 넥센타이어는 RADIAL 설비증설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UHPT 설비 증설에 따른 BIAS 설비 매각 조인식 가져…

BIAS 사업 폐지에 따라 기존 BIAS 설비를 (주)흥아로 이전, 매각하는 조인식을 7월 28일 넥센에서 가졌다. 지난 60여년 동안 넥센타이어(주)와 喜怒哀樂(희노애락)을 같이했던 BIAS 설비 이전, 매각 조인식에 참가한 넥센 이상옥 전무는 딸을 시집보내는 심정이라며 이 설비들을 통해 (주)흥아의 성장에 하나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산지점 OPEN

지난 8월 20일 서부경남지역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마산지점이 마산시 양덕동시대를 마감하고 회원동으로 신축 이전하여 OPEN식을 가졌다.

마산지점은 지상 3층으로 1층은 넥센메이트 마산점이 입주하였고, 2층은 마산지점사무실이며, 아울러 3층 규모의 제품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OPEN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으나 정작 OPEN식이 거행되는 동안에는 넥센타이어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듯 맑게 개어 무사히 OPEN식을 치룰 수 있었다.

이날 넥센 강호찬 상무를 비롯해 마산지점관할 대리점대표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특허권 관련 강의 실시

지난 8월 28일 넥센 교육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 특허권 관련 강의가 있었다. 황의만 특허 법률 사무소의 김성현 차장이 강사로 나선 이번 강의에 많은 연구소 직원들이 참석하여 강의를 경청했다. 특허권 이외에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듣고 질문할 수 있었던 유익한 자리였다. 앞으로의 연구 결과를 지적 재산으로 등록, 넥센타이어의 무형자산을 많이 늘일 수 있기를 바란다.

넥센메이트 사장단 본사 방문

넥센메이트 사장단 30여명이 지난 7월 12일 넥센타이어 본사 공장을 방문하였다. 사장단 일행은 넥센타이어의 전반적인 소개와 이규상 부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넥센메이트의 향후 청사진 및 동반자적 관계를 재확인 한 뒤 공장견학을 하였다. 이날 공장 방문을 통해 그들은 넥센타이어의 탄탄한 재무구조와 생산현장을 직접 보고 넥센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였으며 넥센타이어의 무한한 잠재력을 체험하고 돌아갔다.

한국타이어(주)

비즈니스위크지 한국유망기업에 한국타이어 꼽아

지난 9월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지가 잘 나가는 한국 중견기업이면서 성장이 주목되고 있는 한국의 유망기업으로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태평양, 동양기전을 선정했다. 비즈니스위크지는 이들 업체를 모범사례로 꼽으며 핵심 사업 부문을 집중 육성하고 제품 품질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성공 비결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타이어가 제품 품질 업그레이드로 성공한 점을 들며 연간 매출의 5%를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해외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설한 미국, 독일, 중국에 연구개발센터, 전세계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해외 지점들을 강점으로 꼽았다.

중국 강소성 서기 및 회안시 시장 일행 한국타이어 방문

지난 8월 14일 중국 강소성 이원조 서기 일행(7명)과 강소성 회안시 이계평 시장 일행(10명) 등 총 17명의 일행이 한국타이어 본사를 방문했다.

현재 강소성에는 여러 분야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원조 서기는 이러한 진출 기업들의 방문차 한국 방문을 계획했다. 삼성, 현대 등 기업의 본사를 방문한 후 한국타이어를 방문하여, 조충환 사장과 저녁만찬을 함께 한 이원조 서기는 조충환 사장에게 중국 강소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타이어를 칭찬하며 향후 한국타이어가 강소 공장에 더 크게 증설할 수 있길 부탁했다. 또 경주용 타이어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라인의 증설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이 서기는 강소성 정부는 증설을 위해 대폭 지지할 것이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해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회안시정부 이계평 시장 일행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한국타이어의 협찬 하에 13일 대전 유성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후 14일 서울에서 이원조 서기 일행과 합류하여 한국타이어를 방문했다.

XQ OPTIMO 시승회 화려하게 열려

한국타이어는 지난 9월 21일 XQ OPTIMO UHPT 시승회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승회는 자동차 전문지 기자들을 비롯해 8개 이상의 자동차 동호회와 튜닝숍, 우수 대리점 관계자 등 여론 주도층 고객 300여 명이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인치업에 따른 가장 큰 단점인 승차감 저하와 소음증대 문제를 해결, 핸들링 성능을 유지하면서 기존 제품 대비 소음을 대폭 줄인 것은 물론 승차감과 내구성을 크게 개선해 탄생한 XQ OPTIMO UHPT. 그 타이어를 타사 고급타이어와 자신 있게 비교하면서 고객들에게 진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의 드라이빙 하에 자동차 회사별 각 차량에 타사의 고급타이어와 XQ OPTIMO UHPT를 장착, 시승해 타이어 성능을 직접 체험했다. 또 자동차 동호회별로 5명의 드라이버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장애물 통과하기를 겨루는 짐카나 경기도 열어 색다른 체험을 제공했다. 이 짐카나 경기에서는' I Love Avante XD' 동호회가 최저의 실격률과 정확성, 스피드를 보여 최고의 성적을 내 XQ OPTIMO 5대분 20개을 부상으로 받았다. 뒤이어 투스카니 동호회 'GK매니아'가 2위를 기록해 고급 알로이휠 2대분을, 3위를 기록한 튜닝 전문 'Club Stuff'가 로얄 배터리 5개를 받았으며 나머지 참가한 팀에게는 골프우산 등의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또 한국타이어의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의 동승아래 운전 테크닉을 전수 받으며 자동차 마니아들로서는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90도 이상 경사지 시험주행 코스를 주행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열려 이목을 끌었다. 이번 XQ OPTIMO UHPT 시승회는 시승회와 함께 다양한 직접적인 경험을 선사해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알찬 시간이 되었다.

한국타이어복지재단 소년소녀가장 캠프 열어

한국타이어복지재단은 지난 8월 12일부터 3박 4일간 금산 소재 한국타이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소년소녀 가장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사물놀이 강습, 도미노게임, 도자기 굽기 등 소년소녀 가장들이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적 체험과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교육, 금산에 위치한 한국통신 위성지국, 한국타이어 공장 등을 견학했다.

한국타이어 복지재단에서는 방학을 맞이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적 체험과 정보교육 기회를 제공해 추억이 있는 방학을 만들어 줄 계획이며 복지재단에서는 이런 행사 이외에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소년소녀 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해마다 100여 명의 소년소녀 가장을 선정하여 고교졸업 시까지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한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졸업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